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 KISA, 국가 승인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 정보보호 관련 통계 데이터의 공신력 확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통계청으로부터 정보보호 주요 통계 데이터를 산출하는 공식 통계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KISA는 이미 정통부를 통해 2006년 인터넷침해사고 통계, 개인정보 침해 민원현황, 스팸 수신량 조사, 개인 인터넷 이용자 정보보호 실태조사 등 4종의 주요 정보보호 통계에 대해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공식 통계기관으로의 지정으로 KISA가 산출하는 각종 통계 데이터는 향후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통계 작성기관 지정은 정보보호 분야통계가 IT 통계 데이터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정보보호 산업과 인력 등 관련 통계들을 체계적으로 분리해 산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롭게 발굴된 통계들은 기존의 해킹·바이러스 침해·통계,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통계 등과 더불어 정보보호 정책수립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국내 정보보호 수준이 또 한 단계 도약하는데 일조할 전망이다.

KISA의 한 관계자는 “공식 통계작성 기관 지정을 계기로 향후 정보보호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 자체보다는 경제성 평가·정책성과 평가 등과 관련된 분석된 가치 정보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글루시큐리티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수여

### 업무 연속성 관리가 필요한 기업 관심 보일 듯

KISA가 지난 12월 이글루시큐리티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수여는 고객의 보안 시스템을 원격관제하고 있는 이글루시큐리티의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것으로, 이들의 운영 및 관리 체계가 ISMS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ISMS 인증획득을 통해 이글루시큐리티는 보안관제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인증심사를 진행한 KISA 이재일 단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운영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향후 업무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가 필요한 기업에서도 ISMS 인증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글루시큐리티 통합보안관제센터 조창섭 이사는 “정보자산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는 보안 아웃소싱 비즈니스의 기본이자 고객에 대한 책무”라며 “정보보호 전문기업으로서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안전한 운영뿐만 아니라, 보안관제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선도한다

### 기름 방제활동 및 자선 바자회 개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ISA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KISA 임직원 60여명이 지난해 12월 21일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향3리 망산마을 양식어장에서 다양한 방제활동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름유출사고로 갇힌 시름에 잠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피해 지역이 하루 빨리 복구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바위와 돌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 기름 방제작업과 함께 지난 12월 27일에도 KISA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KISA 직원들이 소장하고 있던 의류, 도서,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잡화 등 1,000여점의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고, 바자회 행사를 통한 판매수익금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합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KISA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열린이웃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향후에도 정보화 및 IT 관련 교육봉사, 노인·장애우·아동·청소년 대상의 봉사, 농어촌·지역사회·NGO 연계 봉사 등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파이웨어 기준 개정 및 사례집 배포

### 인터넷 이용자 피해 상당부분 해소 기대

정통부가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설치되는 Active X 방식의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분류하는 등 현행 스파이웨어 분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스파이웨어는 지난 2005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지만 최근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행조사 결과,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Active X 방식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현행 스파이웨어 기준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설치되거나 속여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지만, Active X 보안 경고창만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 프로그램 제공자 간 동의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이번에 개정된 스파이웨어 기준에서는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정부 사이트의 Active X와 같이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에서만 실행되고 그 사이트를 벗어나면 실행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스파이웨어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 스파이웨어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설치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가 게재돼 있으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